



# 내외소식

## 성북 지부 지부 대회 갖다.

지난 9월 셋째 주일에 성북 지부는 지부 대회를 가졌다. 12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는 여러 신권 지도자들의 훌륭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영의 양식을 만끽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박 길자, 차 순애 자매는 건축 기금 모금 공로 표창을, 윤 일호 형제는 공로 표창을 받았다.



## 부산 동구 지부; 하기 성경 학교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동구지부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 성경 학교를 가졌다.

공과, 이야기, 퀴즈 음악 등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



## 김 동환 형제 귀환

광주 지부 소속의 김 동환 형제가 2년간의 선교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7월 28일 귀환했다.

그는 지난 1970년 7월 11일 부름을 받아 마산, 대전, 군산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가장 오래 있었던 군산 지부에서는 지역장으로 일한바 있다.

그는 떠날 때의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있는 나의 간증을 전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는 회원들이 신앙을 잃어 갈 때가 가장 슬펐으며 새로운 회원들과 함께 참다운 의미의 형제 자매로 지낼수 있었을때가 가장 기쁘다고 감회를 털어 놓기도 했다.

그는 다부진 체구에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은 선교사로서 커다란 보람을 느꼈으며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 목포 지부 야유회 갖다.

지난 7월 17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목포 지부에서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무안군 삼향면 중등포의 시원한 동산을 찾아 여러 가지 게임과 사진 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회원은 모두 이번 모임을 통하여 지부 발전에 대한 열의와 농시에 회원들간의 더욱 밀접한 유대와 친목을 강화 할 수 있었다.



## 신학 연구원 입학식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신학 연구원 1회 등록자에 대한 입학식이 청운지부 신축 예배당에서 있었다.

전 선교부장이었던 스로버 지역대표와 부라운 선교부장 및 서울 동서 지방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는 여러 신권 지도자들의 축사와 텐더 애플 합창단의 합창과 무용이 있었다. 특히 장내를 가득메운 많은 등록 회원은 남녀노소의 계층이 없어 무지를 탈피하려는 몰몬들의 열의를 두드러지게 하기도 했다.

신학 연구원은 우리과 돌림의 두 반으로 나뉘며 교수진은 이호남 형제, 김 종근 형제와 서 희철 형제로 구성되었다.



## 스로버 지역대표 내한

전 선교부장이었던 스로버장로가 새로이 지역대표의 부름을 받고 지난 8월 23일 내한했다.

그는 전체 지방부장단과의 모임에서 한국 성도들의 현황을 보고 받고 여러가지 개선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에 스테이크가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동시에 많은 과제를 부여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신권 승진이 너무 늦다고 지적하신 스로버 지역대표는 합당한 신앙 생활로 빠른 기간내에 신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번역 출판부 소식

지난 9월 한달동안 한국 번역 출판부에서는 4명의 손님을 맞이 하였다.

9월 11일에는 교회 인쇄 고문으로 있는 물간형제가 내한하여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번역 출판부에서는 물간형제에게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배운 기술로 보다 더 좋은 책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또 20일에는 번역 책임자로 있는 미국의 콤스 형제와 일본의 사카이 형제와 중국의 웅 형제가 내한하여 번역상의 문제점과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모임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들에게 한국의 명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 황 경숙 자매 팔군 미인대회 우승

미 팔군에 근무하고 있는 삼정 지부의 황 경숙 자매는 연례 행사로 매년 갖는 미인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고 7월 24일자 '패시픽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지가 크게 보도 했다. 황 자매는 현재 지부에서 유년 부장 및 상호 향상회 보좌로 일하고 있다.

